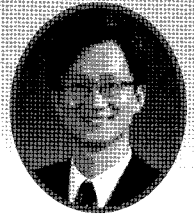


人蔘의 효능과 응용



최호영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

7월호에 「이어서」

이와 같이 人蔘의 응용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조금씩 그 효능이 추가 되었으며, 宋代 이전에는 주로 生津止渴이나 益氣補虛하는데 사용되었고, 金元 이후로는 大補元氣, 固脫하는데 쓰이기 시작하였다. 한국 한의 학도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人蔘의 효능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의학과는 확연히 틀린 것으로 한국 한의학에서는 체질 개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약재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人蔘은 溫熱하므로 少陽人에게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중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李濟馬가 이러한 인식 즉 熱이 많은 少陽人에게 人蔘이 적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청나라에서도 역시 人蔘의 吐血 등의 부작용으로 즉

黨參의 응용이 매우 많아진 것은 매우 유의할 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黨參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人蔘의 효능을 폄하할 수는 없다. 黨參의 가격이 저렴하고 人蔘이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

3. 人蔘의 응용

(1) 脫證

人蔘의 味는 달고 性은 微溫하여 元氣를 크게 補하며 虛脫을 치료한다. <神農本草經>에서 “能回陽氣于垂絕, 却虛邪于俄頃”라고 하여 人蔘이 虛勞內傷에 으뜸 要藥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本草正>에서는 “陽氣虛喝者, 此能回之于無何有之鄉; 陰血崩潰者, 此能障之于已決裂之后”라 하였다. 무릇 大汗, 大吐瀉, 大失血 등 원기가 매우 허탈하여 생기는 일체의 證에 人蔘을 君藥으로 하여 益氣固脫시킬 수 있다.

1) 氣虛欲脫證: 單味로 쓰면 효과가 있는데, 人蔘을 煎服하여 돌연히 발생한 氣脫을 치료한다.(<十藥神書> 獨蔘湯)

2) 氣虛亡陽證: 氣虛欲脫에는 汗出, 肢冷, 脈浮而空 등의 亡陽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人蔘은 益氣固脫하므로 回陽救逆하는 附子和 배합하여 쓴다.(<校注婦人良方> 參附湯) 만약 亡陽虛脫로 인해 위험해지면 制附子, 炙甘草, 姜 등을 배오하여 益氣回陽시킨다. 즉 <景岳全書> 四味回陽飲은 元氣大虧와 陽氣暴脫을 치료한다.

3) 氣虛亡陰證: 熱로 인해 元氣가 傷하고 氣陰이 虛脫되면 神昏, 汗出身熱, 面紅脣乾, 脈虛數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人蔘을 주약으로 하고 麥門冬, 五味子를 배오하여 益氣生津시키고 養陰固脫시킨다.(<內外傷辨惑論> 生脈散)

4) 血虛氣脫證: 補血養陰하는 熟地黃을 배오하여 益氣養陰固脫시킨

다.〈景岳全書〉兩儀膏 氣血이 虧虛 되고 陽精이 허탈된 자는 附子, 五味子, 熟地黃 등을 가하여 益氣補血, 回陽固脫시킨다. 〈類證治裁〉의 救脫湯이 그것이다. 만약 産後에 氣血이 虛하고 陽氣가 끊어지려 하는 자는 當歸, 熟地黃, 枸杞子 등을 가하여 氣血을 補하고 肝腎을 도와 虛脫을 구한다. 〈傳青主女科〉의 救脫活母湯이 그것이다.

(2) 脾虛證

人蔘은 甘溫하여 脾에 入하며 능히 “調中益氣(〈湯液本草〉)”, “和中健脾(〈本草?言〉)”, 하며 補脾의 要藥이 된다. 무릇 飲食勞倦, 濕邪困脾, 思慮過度는 脾虛의 증상을 유발시키며 人蔘을 加味하여 치료한다.

1) 脾氣虛證 : 脾主運化하며, 胃主受納하므로 脾氣가 虛衰하면 運化기능이 失調되어 食少, 腹脹, 便?, 肢倦, 懶言 등의 증상이 생긴다. 人蔘은 脾胃의 氣를 잘 補하여 이들 증상을 잘 치료한다. 보통 白朮과 배오하여 益氣健脾시킨다. 〈景岳全書〉의 參朮膏가 그것인데 人蔘과 白朮을 반씩 물에 가하여 전탕하여 복용한다. 혹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四君子湯은 茯苓, 甘草를 더 가한 것인데 이 처방은 健脾益氣의 기본 처방이 된다. 임상에서는 脾虛兼症에 이 처방에 다른 약물을 배오하여 치료한다. 脾虛로 인해 嘔惡가 심한 자는 〈金?要略〉의 大半夏湯이나, 〈傷寒論〉의 吳茱萸湯에서처럼 半夏나 吳茱

萸를 가해 健脾和胃止嘔시킨다. 소아의 脾虛泄瀉에는 〈小兒藥證直訣〉의 七味白朮散에서처럼 白朮, 藿香, 葛根 등을 배오하여 健脾止瀉시킨다. 소아가 脾虛하여 感冒에 쉽게 걸리면 〈奇效良方〉의 六神散에서처럼 黃?, 白扁豆 등을 가하여 健脾益氣, 固表시킨다. 소아가 脾虛하여 밤에 잠을 잘 못이루고 불안해 하면 〈直指小兒方論〉의 醒脾散에서처럼 白朮, 天麻 등을 가하여 健脾平肝시킨다. 脾虛食積者는 〈繆仲淳方〉의 資生健脾丸이나 〈醫方集解〉의 健脾丸에서처럼 麥芽, 山? 등을 가하여 健脾消食시킨다. 脾虛挾濕者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蔘?白朮散에서처럼 白朮, 茯苓?, 白扁豆, 砂仁 등을 가하여 益氣健脾除濕시킨다. 脾虛痰阻者는 〈千金要方〉의 半夏茯苓湯에서처럼 半夏, 茯苓? 등을 배오하여 益氣和胃除痰시킨다. 脾虛氣滯者는 〈小兒藥證直訣〉의 異功散이나 〈婦人良方〉의 六君子湯에서처럼 陳皮 등을 배오하여 健脾理氣시킨다.

2) 中氣下陷證 : 脾는 升清을 주관하는데 脾氣가 虧虛하면 中氣가 下陷되고 오래되면 脫肛, 臟器下垂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脾胃論〉의 補中益氣湯이나 〈景岳全書〉의 舉元煎에서처럼 人蔘에 黃?, 白朮, 升麻 등과 배오하여 益氣升陽舉陷시킨다. 脾虛氣陷하여 시력이 감퇴된 자는 〈審視瑤函〉의 調中益氣湯처럼 黃?, 升麻, 白朮 등을 배오하여 益氣升陽, 燥濕明目시킨다. 만약 中氣가 부족하여 淸陽이 不升하면 耳鳴, 耳聾의 증상

이 생기는데 〈脾胃論〉의 調中益氣湯에서처럼 黃?, 炙甘草, 升麻, 柴胡 등을 배오하여 調中益氣, 升舉淸陽시킨다. 만약 氣虛下陷하여 淸竅가 失養되어 눈에 ?障이 생기면 〈東垣十書〉의 益氣聰明湯처럼 黃?, 升麻, 葛根, 蔓荊子, 白芍藥 등을 배오하여 益氣升陽, 聰耳明目시킨다.

3) 脾不統血證 : 脾는 統血을 주관하는데 脾氣가 虛衰하면 血을 統攝하지 못하여 血이 脈外로 새어나가서 便血, 尿血, ?血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校注婦人良方大典〉의 歸脾湯처럼 人蔘에 黃?, 白朮, 當歸 등을 배오하여 益氣攝血시킨다. 婦女의 暴崩下血이나 淋?不止에는 〈傳青主女科〉의 固本止崩湯처럼 白朮, 黃?, 熟地黃 등을 배오하여 益氣止血시킨다.

4) 脾陽虛證 : 脾胃의 陽氣가 虛衰하면 陰寒이 内生하는데 腹痛, 肢冷, 浮腫 등의 증상이 생긴다. 〈傷寒論〉의 理中丸은 白朮, 乾薑, 炙甘草를 배오하여 健脾溫中祛寒한다. 만약 中焦가 虛寒하면 脘腹劇痛, 上?皮起 등의 증상이 생긴다. 〈金?要略〉의 大建中湯은 蜀椒, 乾薑, 飴糖 등을 배오하여 健脾溫中, 散寒止痛한다. 만약 임신부의 胃中이 虛寒하면 嘔惡가 그치지 않는다. 〈金?要略〉의 乾薑人蔘半夏湯은 乾薑, 半夏 등을 배오하여 健脾溫中止嘔한다. 만약 婦女의 血海가 虛寒하면 〈婦人良方大典〉의 溫經湯에서처럼 當歸, 桂心 등을 배오하여 溫經散寒시킨다. 만약 中焦가 虛寒하면 滑脫失禁하므로

〈太平惠民和劑局方〉의 養臟湯에서 처럼 肉豆?, 罌粟殼 등을 배오하여 溫中固澁시킨다.

5) 脾陰虛證: 脾陰이 虛衰하여 滋養運化를 失調하면 食後腹脹, 便難或不調, 口乾, 手足煩熱 등의 증상이 생긴다. 人蔘은 “性品中和, 不寒不燥”(〈本草求真〉)하므로 益氣, 生津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脾陰虛證에 〈不居集〉의 理脾陰方에서처럼 山藥, 蓮子 등을 배오하여 健脾養陰시킨다.

(3) 肺虛證

人蔘은 “專入肺”(〈本草求真〉), “能補肺中之氣”(〈本草綱目〉), “定喘咳”(〈本草蒙筌〉), “消胸中痰”(〈藥性論〉)의 효능을 갖는 補肺의 要藥이다. 대개 久咳傷肺 燥熱傷陰으로 肺虛나 肺腎兩虛가 된 證에 이 약을 배합하여 응용한다.

1) 肺氣虛證: 肺는 一身의 氣를 주관하며, 呼吸을 담당한다. 肺氣가 旺하면 다른 장기가 모두 旺하게 된다. 肺氣虛損하면 咳喘短氣하여 늡지 못하고, 痰清聲低 등이 되는데, 人蔘은 大補元氣 益肺氣하므로 五味子 蘇子 桑白皮 등 약을 배합하여, 補肺止咳平喘한다. 〈千金要方〉 補肺湯) 만약 肺虛氣弱하여 肺不斂氣하여 久咳가 그치지 않고 咳甚하면 氣喘自汗하면 五味子 등을 배합하여 斂肺止咳 한다. 〈醫學正傳〉 九仙散) 만약 肺氣虛弱으로 鼻竅에 邪氣가 머물러 鼻痔 재채기 등 증이 있으면 荊芥 細辛 訶子 桔梗 등약을 배합하

여 溫補肺氣 疎風散寒한다. 〈瘍醫大全〉 溫肺止流丹)

2) 氣陰兩虛證: 肺氣가 耗散하고 肺陰이 虧損하여 ?咳少痰 喘促自汗 口乾舌燥 등 證이 나타난다. 人蔘은 益氣하고 生津하므로 五味子 麥門冬 등을 배합하여 益氣生津 斂肺止咳한다. 〈類證活人書〉 五味子湯. 溫燥傷肺로 氣陰兩虛하여 乾咳無痰 氣逆而喘하는 사람은 麥門冬 桑葉 등을 배합하여 清燥潤肺한다. 〈醫門法律〉 清燥救肺湯)

3) 肺腎兩虛證: 肺司呼吸하고 腎主納氣하므로 肺腎氣虛하면 胸悶喘急하며 바로 늡지 못한다. 人蔘에 胡桃 生薑 大棗를 배합하여 補肺腎 定喘逆한다. 〈濟生方〉 人蔘胡桃湯) 만약 久咳傷肺하고 腎不納氣하며 痰熱內蘊하여 喘咳不已나 咳吐膿血 胸中煩熱 등이 나타나면 蛤? 桑白皮 등을 배합하여 益氣補腎 清肺化痰한다. 〈衛生寶鑑〉 人蔘蛤?散) 만약 肺腎陰虛로 ?血咳嗽하면 二地 二冬을 배합하여 益氣滋陰하여 肺腎同治한다. 〈景岳全書〉 人蔘固本丸)

(4) 不寐健忘症

〈神農本草經〉에 人蔘은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開心 益智”라 하였다. 人蔘은 大補元氣하며 元氣가 충만하면 心氣가 補養되고 心神이 安寧하게 되며 心氣가 聰明하게 되어 安神益智의 효능이 있게 된다. 心氣가 부족하면 驚悸恍惚 夜臥不安 健忘 등 증이 생기며, 茯? 遠志 石菖蒲를 배합하여 益氣補心 安神定志한

다. 〈太平惠民和劑局方〉 定志丸). 心腎不足으로 陰血虧少하면 心煩不寐 心悸不安 健忘 등 증이 보이는데 生地黃 麥門冬 酸棗仁 등을 配合하여 滋陰養血 補心安神한다. 〈攝生秘剖〉 天王補心丹). 心脾不足으로 多夢易醒 心悸健忘 納?便? 등이 보이면 白朮 黃? 酸棗仁 茯神 등을 배합하여 補養心脾한다. 〈濟生方〉 歸脾湯) 心膽氣虛로 失眠多夢 易驚 膽怯心悸 등이 보이면 龍齒 茯神 石菖蒲를 배합하여 益氣鎮驚 安神定志한다. 〈醫學心悟〉 安神定志丸). 만약 迷惑善忘하면 石菖蒲 遠志 茯神 茯?과 함께 가루내어 복용한다. 〈千金要方〉 令人不忘方)

(5) 津虧證, 消渴證, 血虛證

人蔘은 大補元氣하며, 氣足하면 津液도 充足되어 口不渴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蔘은 生津止渴하여 津虧證과 消渴證에 사용한다. 만약 氣分熱盛으로 氣津兩傷하면 身大熱 大煩渴 大汗 脈洪大而無力하게 되는데 石膏 知母 甘草 粳米를 배오하면 辛寒清熱 益氣生津하게 된다. 〈傷寒論〉 白虎加入蔘湯) 만약 熱病後期에 餘熱未盡 津氣已傷 咽乾口渴 少氣欲嘔 등증에는 竹葉 石膏 半夏 麥門冬을 배오한다. 〈傷寒論〉 竹葉石膏湯) 만약 여름에 汗出過多로 耗氣傷陰하여 體倦氣短 小便頻數 脈洪無力한 消渴證이라면 麥門冬 天門冬 天花粉 黃芩 知母 甘草 荷葉를 배합하여 益氣生津 清熱解渴한다. 〈醫學心悟〉 二冬湯) 만약 消渴로 引飲無度하면

人蔘과 瓜蒌根 동량을 가루내어 煉蜜로 丸을 만든다. (《仁齋直指方》玉壺丸)

人蔘은 “惟其氣壯而不辛 所以能固氣, 惟其味甘而純正 所以能補血” (《本草正》), “補氣生血 助精安神” (《本草?言》) 血虛證과 氣血雙虧證에 대개 當歸와 同用한다. (《景岳全書》參歸湯) 心血虛로 驚悸??하거나 竊盜汗不寐하면 茯神 五味子 酸棗仁 등을 배합하여 養心安神한다. (《校注婦人良方》養心湯) 氣血不足으로 面色萎黃 頭暈心悸 納?體倦하면 白朮 當歸 熟地 등을 배합하여 補益氣血한다. (《正體類要》八珍湯) 氣虛血弱하고 心失所養하여 心動悸 脈結代하면 炙甘草 地黃 桂枝 등을 배합한다. (《傷寒論》炙甘草湯) 心脾兩虛로 氣血不足하여 食少體倦 面色萎黃 體虛發熱하면 當歸 遠志 酸棗仁 白朮 등을 배합한다. (《校注婦人良方》歸脾湯) 産後氣血不足으로 乳汁不通하면 黃? 當歸 白朮 木通 등을 배합한다. (《傳青主女科》通乳丹) 氣血不足으로 牙宣口瘡하면 白朮 黃? 熟地 등을 배합한다. (《外科正宗》蔘?內托散) 久病에 氣血虧虛하여 耳鳴 耳聾하면 白朮 黃? 肉桂 當歸 등을 배합한다. (《辨證錄》發陽通陰湯)

(6) 陽萎證 虛損證

人蔘은 大補元氣하고 益腎助陽하여 腎虛陽?에 사용하며, 單用으로 술에 타서 복용하여도 좋은 효과가 있다. 대개 鹿茸 熟地黃 등을 배합하면 효과가 강해진다. 만약 腎元陰元

陽虧虛로 陽萎早泄하면 鹿角 龜甲 枸杞子와 함께 고아서 복용한다. (《蘭臺軌范》龜鹿二仙膏) 만약 精血虧虛하고 元陽衰弱하여 陽萎遺精 失眠 多夢 등이 보이면 熟地黃 山茱萸 巴戟天 遠志 柏子仁 등을 배오하여 培元補腎 養心寧神한다. (《萬病回春》延齡固本丹)

人蔘은 大補元氣하여 先天을 養하며, 또 健脾益氣하여 後天을 培하여, 強身延年한다. 小兒의 稟賦不足과 腎元虧虛에는 熟地黃 山藥 杜仲 當歸 등을 배합하여 培補下元한다. (《景岳全書》大補元煎) 小兒가 평소脾胃가 弱하여 식사도 적게하고 말랐다면 白朮 茯? 使君子 神? 등을 배합하여 健脾益胃 消食和中한다. (《幼科發揮》萬氏肥兒丸) 체질이 허약하여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약한 사람은 鹿鞭 狗鞭 淫羊藿 등을 배합한다. (《烟台中藥?配方》至寶三鞭丸) 중노년에 精力이 점차 衰하고 氣血이 虧耗되고 臟腑가 虛弱하면 製首烏 巴戟天 當歸 등을 배합한다. (《中國醫學大辭典》長生不老丹) 나이들어 몸이 약해지면서 臟腑가 虛損하고 脾胃薄弱하면 山藥 茯? ?實 蓮子肉 등을 배합하여 健脾益胃 益氣和中한다. (《外科正宗》八仙?)

(7) 邪實正虛證

人蔘은 正氣를 保護하며 祛邪藥物과 配伍하면 扶正祛邪의 묘함이 있다. 만약 氣虛外感風寒이라면 前胡 桔梗을 배합하여 益氣解表한다. (《太平惠民和劑局方》人蔘敗毒散 蔘蘇

飲) 만약 內熱裡結하고 氣血이 허약하면 大黃 芒硝 當歸 등을 배합한다. (《傷寒六書》黃龍湯) 만약 瘡瘍이 潰한 후에 正氣가 허약하여 收斂하지 못하면 黃? 當歸 등을 배합하여 溫補氣血하고 斂瘡生肌한다. (《外科正宗》保元大成湯) 만약 痘瘡表虛하여 斑爛不能收斂하면 黃? 當歸 金銀花 連翹 등을 배합한다. (《張氏醫通》人蔘固肌湯) 만약 ?疾이 계속되어 ?塊가 되었으면 龜甲 桃仁을 배합한다. (《傷寒論》鱉甲煎丸) 만약 痰熱咳嗽痰多하면 半夏 青黛 天門冬 등을 배합한다. (《內外傷辨惑論》人蔘清鎮湯) 만약 水腫喘盛하면 人蔘??子를 가루내어 丸으로 하고, 桑白皮煎湯으로 下服한다. (《醫學啓源》人蔘??丸)

참고문헌

- 朴華用. 1989. 韓國産 栽培人蔘의 遺傳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1991. 本草學, 서울, 永林社, pp,531-534.
- 國家中醫藥管理局. 1995. 中國中醫藥年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74.
- 孟慶瑛. 1996. 清代人蔘資源保護管理中藥材 19(1):50-51.
- 周鳳梧. 1987. 古今藥方縱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63-274.
- 雷載權 張廷模. 中華臨床中藥學(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585-1597.

